

속아내고 고른, 좋은 책만 권한다

'튜브북스'의 북큐레이터 박 사씨

'북큐레이터'라는 낯선 직업을 가진 박 사씨(29)는 책이 혹은 책을 만들고 읽는 사람들이 가진 근엄함이 없다. 노랗게 물들여 짧게 깎은 머리, 씩씩한 움직임에도 낡을 것 같지 않은 신발 같은 걸모습, 인도철학 전공에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재입학, 웹진 《스폰지》 기자와 10대들의 문화잡지 《도시락》 특집 담당기자의 경력은 종이책이 갖는 이미지와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다.

“외국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북큐레이터가 정착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생소하죠. 제가 하는 일도 아직은 책을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실무적인 일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가 살아숨쉬는 공간

대구의 하늘북서점 권오국 사장

언뜻 보기에 하늘북서점은 특이한 상호만 뵈다면 길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서점이다. 학습지나 가벼운 읽을거리가 많을 것이라 상상하기 쉽다. 하지만 서점의 무게중심은 한없이 권오국 사장(43)이 직접 가려 뽑은 좋은 책 코너로 쏠린다. 양서에 대한 권사장의 안목 덕택에 출판사 영업인들은 책에 대한 그의 열정을 오랫동안 기억한다.

대구토박이인 권사장의 책에 대한 열정은 그의 삶에서 비롯한다. 77학번으로 사회변혁에 대한 목마름 속에 70~80년대를 보냈다. 민통련·수배·수감은 그의 청춘시절을 규정하는 단어. 하지만 87년 수배생활 중 우연히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은 뒤, 그의 삶은 조금씩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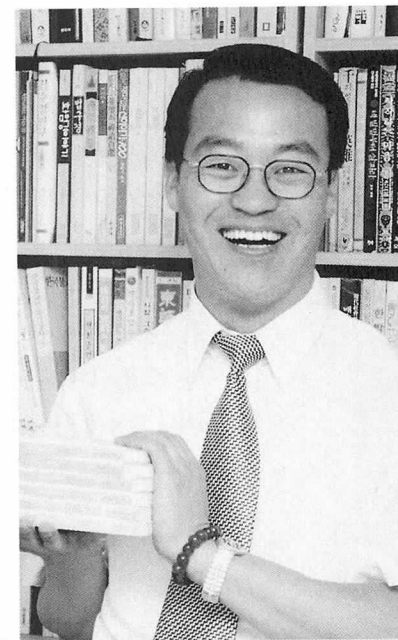
농부의 마음으로 지혜의 씨앗을

'씨앗을뿌리는사람'의 첫책

《흙 한줌 물 한모금의 가르침》

누구에게나 첫 경험은 가슴 떨리는 사건이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이나 처음 경험한 사건을 신성한 기억의 공간에 저장해놓는 것은 그것이 불러일으킨 순수의 힘 때문이다. '씨앗을뿌리는사람'의 장익순 대표는 지난달 1일 첫 책 《흙 한줌 물 한모금의 가르침》을 펴내 운명의 첫발을 내디뎠다.

“첫 책에는 무엇보다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독자들이 늘 곁에 두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자는 뜻에서 아메리카 인디언의 지혜를 담은 이 책을 선택했죠.” 그에 그 룯도 달라야 했다.



**“외국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북큐레이터가 정착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생소한
직업이죠.**

**단순한 일과 속에서도
책을 골라 권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들어 있다. 바로 책을 고르는 과정이다. 서점에 진열할 책의 선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다. 물론 기본 원칙은 있다. 내용은 물론이고 오자가 없고, 표지와 편집디자인 등 끝마무리가 잘 됐다 살핀다. 그래선지 넓지 않은 튜브를 메운 책들은 한눈에 보기에 아름답다.

“찾아오는 손님에게 책을 권하는 것도 제 할 일입니다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100권을 추천하면 한두권이나 반응을 보일까요.”

미국의 반즈앤노블은 서점 벽에 연필로 쓴 서평을 독자 누구라도 붙일 수 있고 비슷한 관심을 가진 이는 서평의 권위나 객관성에 토달지 않고 책을 사간다. 우리는 베스트셀러나 좋은 평가를 받은 책만 찾는다.

“베스트셀러 집계 대신 ‘튜브 초이스’를 운영합니다. 시의성이나 화제성을 고려해 책을 주제별로 전시하죠.”

튜브 초이스의 이번 주제는 ‘여행’이다. 지난 5월부터 서점 3분의 1을 차지한 북카페에서 기획행사 ‘일요일의 행복한 만화 카페’를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썩 좋다. 책을 중심으로 한 ‘살롱문화’를 꿈꾸는 그에게 북카페에서의 기획행사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다음 번에는 책의 겉모양뿐 아니라 내용, 활자까지 만드는 진짜 ‘책 만드는 사람들’을 모아볼 생각이다.

— 이현주 기자

**“책을 매개로 한 독자와의
만남을 중요시합니다.
서점은 책만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가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자신의 말을 빌자면, ‘소시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 결심’을 처음 했다. 그 결심은 89년 러시아혁명에서 유래된 상호의 ‘시월서점’을 개장하면서 구체화됐고 92년 현재의 자리로 옮기면서 ‘하늘북서점’으로 다시 탄생했다.

“화엄경에 하늘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니 사방의 모든 이웃이 진리의 도장에 모여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해인사 스님의 제안으로 상호로 사용하게 됐죠.”

개점할 때만 해도 30평 규모였는데 지금은 140평으로 늘었다. 주변에 3개가 넘는 대형서점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놀라운 발전이다. 좋은 책과 눈 밝은 독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서점이 베스트셀러를 좇는 10~20대 독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하늘북서점은 많지 않은 인문사회과학 독자층을 주고객으로 설정했다.

하늘북서점은 지난 5월 24일 김지하씨 초청강연을 주최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권사장은 아직까지 책을 매개로 한 독자와의 만남을 더 중요시한다. 서점이 책만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가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믿음. 서점이 지역문화가 살아숨쉬는 문화공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그런 믿음에서 비롯한다. 권사장은 올 한해도 이런 믿음을 실현시킬 마음에 분주하다.

— 김연수 기자

**“첫책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적 가치가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늘 곁에 두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자는 뜻에서
이 책을 선택했죠.”**

자신의 말을 빌자면, ‘소시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 결심’을 처음 했다. 그 결심은 89년 러시아혁명에서 유래된 상호의 ‘시월서점’을 개장하면서 구체화됐고 92년 현재의 자리로 옮기면서 ‘하늘북서점’으로 다시 탄생했다.

“화엄경에 하늘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니 사방의 모든 이웃이 진리의 도장에 모여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해인사 스님의 제안으로 상호로 사용하게 됐죠.”

개점할 때만 해도 30평 규모였는데 지금은 140평으로 늘었다. 주변에 3개가 넘는 대형서점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놀라운 발전이다. 좋은 책과 눈 밝은 독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서점이 베스트셀러를 좇는 10~20대 독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하늘북서점은 많지 않은 인문사회과학 독자층을 주고객으로 설정했다.

하늘북서점은 지난 5월 24일 김지하씨 초청강연을 주최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권사장은 아직까지 책을 매개로 한 독자와의 만남을 더 중요시한다. 서점이 책만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가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믿음. 서점이 지역문화가 살아숨쉬는 문화공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그런 믿음에서 비롯한다. 권사장은 올 한해도 이런 믿음을 실현시킬 마음에 분주하다.

— 박천홍 기자